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모임]

1. 당회 - 오늘 주일3부예배 후 / 당회실

[알림]

- 총회 세례교인 헌금주일 - 8월 2일(주일) / 세례교인 1인 1만원
- 장학금 후원 안내 - 문의: 김영채 집사(010-9560-1028) / 후원계좌- 주보 5면
*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 - 8월 16일(주일) 오후예배 시 / 대상: 중·고·청년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조정옥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 목 사	고윤철	오상옥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전 도 사	김명순	조정옥	전상순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태응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직 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안철호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7. 26 (NO. 62-30)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 일 예 배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우릴 사용하소서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홍순영 장로(2부) / 이원명 장로(3부)
성경	막 9:14-29
설교	예수님의 기적(28) :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357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2:00 (본당)	오후 4:00 (본당)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이승준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막 15:13-14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6) - 십자가와 파기된 언약”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목요영성기도회
새벽 5:00 (본당)	저녁 8:00 (본당)
나눔 - 담당 교역자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쉽니다.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안내위원	2 여 전 도 회	
	2 부	이원명 장로	식당봉사	금 주	
	3 부	이대영 장로		내 주	
주일새벽	금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대순 박도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차량운행	2호/ 이봉구 집사 010-8281-3779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수요일예배	1 부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2 부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영성기도회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 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회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7일)	최영희
화 (28일)	송정숙
수 (29일)	심윤중
목 (30일)	고윤설 김명순
금 (31일)	임현성
토 (1일)	조상용 김혜경 최영일 손정숙 이종욱
주일 (2일)	전용주 권연목 임영숙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김명순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 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26일(주일)	27일(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31일(금)	1일(토)
성경	아8-사2	사3-5	사6-8	사9-11	사12-16	사17-19	사20-22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 · 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 나 님 경 험 하 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증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8월 행사 안내

* 2일(주일) /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일

* 3일(월)~5일(수) / 기도의 십일조

교회생활 안내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배당 입장 시에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1층 로비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가족중에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우·노약자·영유아 경우,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열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산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기독교타임즈
- 옥천각계교회
- 총신대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신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군선교연합회
- 내륙흥 노인회
- 주바라기선교회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극동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예수님의 기적(27) - 말고의 귀를 낮게 하신 기적(눅22:47-53)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요한복음은 그 제자가 '베드로',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밝히고 있다. 베드로 때문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낮게 하신 것이다. 복잡하게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정리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상황에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며 기꺼이 붙잡히셨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살펴보자.

1.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몇은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칼은 폭력을 의미하고, 세상의 권력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일찌감치 칼 같은 세상방식으로 세우는 나라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결박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반목과 갈등, 분쟁과 다툼을 일삼으며,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충돌하려고 한다. 그러나 분노, 증오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2. 어려운 상황에도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모습을 넘어, 지극히 자비롭고 따뜻하신 성품을 '말고'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말고는 종이였다. 그의 귀가 잘려나간들, 주인은 가족처럼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한쪽 귀가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대우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을 그 종에게 예수님은 그의 귀를 만지시면서 자상한 친절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렵고 위급한 때에, 항상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가를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다.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난무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3. 끝까지 인내하며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이제 십자가 고지가 코앞인데,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시험을 거뜰히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수하신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인생의 경주에서 인내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순간순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 우리는 가끔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그만 내려놓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다. 어쩌면 코로나19와 함께 했던 지난 6개월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이것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자!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31일(금) 찬 20장 나 3:8-19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앗수르는 농업 기술, 군사 기술, 무기 제작 기술도 당대 최고였기에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은 앗수르가 노아몬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노아몬’이라고 불리던 ‘테베’는 나일강과 바다가 방어벽을 이루는 천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구스(이디오피아), 붓, 루빔(리비아) 등의 나라들과 강한 동맹 관계도 맺고 있었지만 결국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져 있던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에게 앗수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많은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존하고 믿고 따르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게 어떤 결단과 변화가 필요합니까?

1일(토) 찬 292장 미 1:1-7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모레셋 사람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미가는 처음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죄가 가득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미가에게 말씀하셨음을 강조해 선포된 말씀에 대한 강력한 권위를 표합니다(1~4절). 본문에서 미가는 사마리아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며 그 우상들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는데(6~7절),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한 민족이기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확실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2일(주일) 찬 286장 미 1:8-16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며 애곡했습니다(8절). 백성들의 죄악이 온 땅을 뒤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덮어 주고 치료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9절). 미가는 하나님께서 장차 앗수르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의 열두 도시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10~15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은 결국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사로잡혀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버려야 할 것은 지금 즉시 버리고, 순종해야 할 것은 지금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순종할 때 확실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영미 강용주(김경희) 강지균(강성희) 구왕성 구회선(박지숙) 김동윤(이연옥) 김순남 김순희b(이동주) 김연수 김영자d 김옥단 김인숙 김재원(길준순) 김정자a 김형민(윤혜성) 도소재 박일용(조영희) 백규현(양미숙) 성근영(김옥란a,성종윤) 오복순 오상옥(김진남) 오세종(김윤정b) 윤상덕(양길용) 윤상덕(양길용,윤성수) 이명국(이용매) 이성수a(장미) 이원명(우종선) 이인옥(김은현) 이재균(김현진) 이해정 장인순 전상순 전승영(오계숙) 전옥순 정상남(이은숙) 조규연(서정순b) 주정숙 최남철(손순이) 최영란b 편대성(신신혜) 함수경 황갑순(김상옥) 황경숙 황덕순(김기환) 황명동(이후남,황훈) 황명옥

감사헌금

강용주(김경희) 강은자 고윤설(박혜란) 권상희 김동윤(이연옥) 김동춘(유덕자) 김영천(남정혜) 김혜자 박근현 박일용(조영희) 박정자b 박종보 서성모 신신혜 신영순 안종근(국은희,안종경) 오상옥(김진남) 유춘성 이성수a(장미) 이영숙c 이지영(윤명심) 이춘자b 임용식(우현주) 조국진 조상용(김혜경) 최영란b(김영서) 최진수 하용호(문희정) 허창구(김덕자) 황경숙 무명

선교헌금

강용주(김경희) 강지균(강성희) 구왕성 구회선(박지숙) 길준순 김동윤(이연옥) 김동춘(유덕자) 김세현 김순남 김영자d 김예현 김옥단 김은현 김인숙 김재원(길준순) 김정순d 김정술(최화단) 김정자 도소재 박근현 박병란 박일용(조영희) 박정자b 박희인 백규현(양미숙) 서기홍(하복임) 서호석(김민희) 성근영(김옥란a) 소병준(황명옥) 오상옥(김진남) 오세종(김윤정b) 유극기 유덕자 윤상애 윤성수 윤인애 이래민 이명국(이용매) 이상우(이성희) 이성수a(장미) 이신순(서정자) 이영학(김성순) 이은숙 이인옥 이재균(김현진) 이종규(이혜실) 이종란b 이창익 이해정 임용식(우현주) 장인순 전승영(오계숙) 정상남(이은숙) 주정숙 최순임 최영애 최현순 최화단 편대성(신신혜) 한영희 황갑순 황경숙 황명동(이후남,황훈) 6남전도회 6여전도회

맥추감사헌금

김동윤(이연옥) 박일용(조영희) 양주선 정상남(이은숙) 정태옥 주정숙 최영란b 편대성 무명

교회사랑천사헌금 김은현 이인옥

장학헌금 윤재룡 전용주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7일(월) 찬 279장 나 1:1-8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서는 요나를 통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며, 회개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의 소굴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는 그들의 추악한 삶의 형태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케 했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다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때에도 그랬듯이 니느웨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유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번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피할 산성이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28일(화) 찬 322장 나 1:9-15 온전히 멸하시리니

나훔은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앗수르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주변 국가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상을 보시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10절)이라고 말씀하시며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12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유다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앗수르는 남유다까지 위협했으며, 히스기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했던 앗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한순간에 멸망하고, 유다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치실 수도 있는 권세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9일(수) 찬 499장 나 2:1-13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파괴하는 자)을 통해 니느웨(너)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1절).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는 말은 바벨론의 공격이 막강해 니느웨가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음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니느웨는 강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강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강한 자를 멸하십니다. 니느웨(앗수르의 수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2절). 니느웨도 잔인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바벨론 군대의 붉은 방패, 붉은 옷, 번쩍이는 병거의 쇠, 번개 같은 병거에 의해 진멸될 것입니다(3~4절). 결국 한때 고대 근동의 맹주였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나라가 점령되고, 왕족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5~6절). 세상의 불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불의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기에 누구도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30일(목) 찬 528장 나 3:1-7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서는 나훔을 통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니느웨의 멸망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십니다. 2~3절은 누구라도 이 현장에 있으면 두려움에 질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니느웨는 원래 요나의 외침에 의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도시이지만, 결국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처럼 그들을 미혹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믿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니느웨를 떠나 그들에게 공포와 굴욕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모든 나라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삼으실 것입니다(5~7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처참한 멸망의 시간뿐이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니느웨와 같은 세상적 가치관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세상은 결국 의의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